

2009 한국전자 산업대전 개막

반도체, 디스플레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등 국내 최신 전자기술이 총 출동한 <2009 한국전자 산업대전>이 10월14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2009 한국전자 산업대전>에는 국내기업 450개, 해외기업 200개, 총 650개 기업이 참가해 전자산업의 최신 기술들을 일반에 공개했다.



특히, LED(Light Emitting Diode)와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많은 국내외기업이 관련제품을 선보였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IT 관련기업들은 최신 LED 제품을 비롯해 Flexible OLED 제품들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또 Merck 등 외국기업들은 새로운 OLED 염료 및 LCD용 소재를 공개함으로써 소재분야를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OLED를 이용한 조명기기를 선보임과 동시에 투명 OLED와 투명 회로를 접목시킨 제품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밖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적용시킨 신개념 FPCB(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제품 등 소재분야와 IT 및 의료·생활분야를 접목시킨 응용제품들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이명주 기자>

<화학저널 2009/10/15>